2017년 3월 6일 월요일 12

#### 홈플러스 창립 20주년 '쇼핑하라 2017' 프로모션

홈플러스가 29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'쇼핑 하라 2017'을 진행한다. 매주 테마별 특별 아이템을 선정해 할인 판매하고, 고객 대 상 이색 마케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. 서프라이즈 20, 신선 대 표 20선, 뜻밖의 플러스 베스트20 등 숫자 '20'의 스토리텔링을 녹인 테마를 내놨다.



# "'대장부', 증류소주의 대중화 실현"

#### 비즈 & 피플

# 롯데주류 상품개발팀 조판기 팀장

지난해 5월 출시된 '대장부'가 술 맛 좀 안다는 이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. '대장부' 는 롯데주류가 쌓아온 50년 전통 증류기술을 바 탕으로 출시한 증류식 소주다. '화요'와 '일품진 로'로 대변되던 증류식 소주 시장에 롯데주류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는데, 반응이 꽤 뜨겁 다.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발효 와 증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까 다롭고 생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. 만들기는 어렵지만 마시는 이들에게는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전해주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만을 고집하는 이들도 많다. 대장부로 증류소주 시장 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롯데주류 상품개발 팀 조판기 팀장을 만났다.

100% 국산쌀에 독자개발 효모 사용 21도 제품 소주병 병입해 출고가 낮춰 최고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

-대장부에 대한 간단한 제품 소개를 부탁한다 "롯데주류 '대장부'는 전래의 양조기술인 '단식 증류방식'을 빚어 풍부한 맛과 향을 재현한 고급

증류식 소주다. 100% 국산쌀을 사용했고, 외피

를 3번 도정하고 15도 이하의 저온에서 발효와

숙성을 거쳐 깊은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지녔



롯데주류 상품개발팀 조판기 팀장은 "최고 품질의 프 리미엄 증류식 소주 '대장부25', 합리적인 가격의 '대 장부21'등 소주시장의 고급화에 앞장서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다. 특히,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향기(高香氣) 효 모를 넣어 일반 증류식 소주보다 더 깊고 은은한 향을 살렸다. 최고급 청주 설화와 국향을 빚어내 는 롯데주류의 50년 전통의 증류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만큼 애정이 가는 제품이다. 현재 25도와 21도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."

-대장부라는 이름이 독특하다. 의미는?

"증류식 소주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'천하의 큰 뜻 을 품은 사람'이라는 뜻의 '대장부'로 정했다. 또 힘과 기개가 느껴지는 붓글씨 서체로 표현해 기 개 높은 대장부의 이미지를 강조했다. 패키지도 둥근 유리병에 실크 형태로 인쇄해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느낌을 살렸다."

#### -출시와 동시에 애주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.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

"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킨 제품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'가성비'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 각하는 최근 소비 성향을 반영한 것이 인기 비결 이라는 생각이 든다. 증류소주는 만드는 과정과 재료 등이 다르다 보니 고급소주로 인식되어 있 고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.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증류소주를 경험할 수 없었 던 것이 사실이다. 하지만 9월에 출시한 '대장부 21'은 이러한 선입견을 깨고 누구나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쉽고 편안하게 또 부담 없는 가격으 로 증류소주를 즐길 수 있도록 공용병인 소주병 에 병입해 출고가를 낮출 수 있었다. 말 그대로 증류소주의 대중화를 실현한 제품이다.

#### -앞으로의 계획은?

"'대장부25'는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로 '대장부21'은 합리적인 가격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지금까지 국내 소주시장은 희석식 소주로만 형성돼 왔다. 하지만 앞으로 증류식 소주의 대중화를 통해 소주시장의 고급화에 앞장서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# 경제현장.jpg 올리브영 '굿! 세일'···립스틱·대용량화장품 '불티' 올리브영이 6일까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 첫 대규모 세일 '굿! 세일'을 연다. 지난 2일부터 봄 내음이

물씬 느껴지는 제품들을 전면 배치하고 최대 50% 할인한 결과, 불황형 제품인 립스팁 등 색조 제품과 대용 량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. 고객들이 5일 올리브영 서울 명동본점에서 쇼핑하고 있다.

# 소자본창업, 마끼 전문점 어때요?

'마싯는끼니' 간편 조리로 1인 운영 가능 10평 내외 소규모 매장에 포장판매 장점

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창업 시장은 곧 생존 시장이다.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15년 하루 평균 3000명꼴로 점포 를 차렸지만 매일 2000명은 문을 닫았다.

이러한 창업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는 차별화된 아이템과 편리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꾸준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.

마끼 전문점 '마싯는끼니'는 차별화된 아이 템과 간편 조리 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소 자본창업 브랜드다. 론칭 후 1년이 채 되지 않 았지만 전국에 약 20여 개의 가맹점을 오픈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

'마끼'라는 메뉴 아이템으로 간편한 조리 시 스템을 적용해 1인 운영이 가능하다.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소자본

마끼 전문점 '마싯는끼니'는 1인 운영이 가능한 소 자본창업 브랜드로 '마끼'라는 메뉴 아이템과 간편 조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.

창업에 안성맞춤.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포장 판매도 가능해 시간당 최대 매출에 한계가 있 는 외식 창업과 차별화를 꾀했다.

마싯는끼니 관계자는 "대부분의 가맹점이 10평 규모의 매장에서 하루 평균 50만~6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"며 "10평 내외 소규 모 매장이 갖는 비용절감 효과와 홀과 포장, 배달 등의 다양한 판매방식이 장점"이라고 말 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## 롯데월드타워 123층 2917계단 도전하세요

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 4월23일 개최

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4월23일 '롯데 월드타워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'를 개최한 다. 롯데월드타워 1층 아레나광장에서 123층 전망대까지 해발 500m,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행사이다. 선수, 일반 개인, 단체가 참가하는 경쟁 부문과 소방관, 경찰 관. 지자체 등이 참여해 기부금을 마련하는 비경쟁 부문으로 나뉜다.

경쟁부문은 1등부터 3등까지 남녀 6인에 게 총 12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증정하 며 일반 개인 참가자 중 1등은 롯데백화점 상 품권 123만원, 2등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, 3등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2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. 기업별 단체 1개 팀(5명)과 이색적인 복장의 참가자 4명도 쌩 메종 식사권, 스마트워치 크로스핏 셋트 등 을 별도 시상한다.

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누구나 참



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 마라톤대회 공식 포스터

안 롯데월드타워 홈 페이지(www.lwt.c o.kr/skyrun.do) 를 통해 1000명 선 착순으로 접수를 받 는다. 참가비는 3만 원이다. 참가비는 전액 초록우산어린

가 가능하며, 6일부

터 24일까지 3주 동

이재단을 통해 결손

가정 스포츠 어린이 인재 육성에 기부한다.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### LG전자 "G4·V10 업그레이드 지원"

소비자들의 불만이 일자 LG전자가 'G4'와 'V10'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물 러섰다. LG전자는 V10은 오는 2분기 중, G 4는 3분기에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게 '안드로이드7.0'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. LG전자는 당초 G4와 V10에 대한 운 영체제(OS) 업데이트 중단을 선언했다. 두 모

델이 안드로이드 5.0과 6.0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이유에서 다. 하지만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'선택권 침 해' 비판이 나왔고 '업그레이드 지원'으로 입장 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뉴스디자인ㅣ이수진 기자

